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 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十三經에 대한 한국과 중국 유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29편이 있었다(등재학술지 24편, 등재 후보 학술지 3편, 박사학위 2편). 2014년도에는 경학 논문이 51편이었다.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29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두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석하고, 2015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2. 인물별 분류

총 29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27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이다. 두 학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 논문은 1편이다. 부제목이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는 논문은 비교 논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의 경학 사상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비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에는 총 51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45편이었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6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이었다. 두 학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교 논문은 4편이었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20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丁若鏞(茶山, 1762 - 1836)으로 총 5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	김유곤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에 나타난 학문 관	Acta Koreana 18–2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3	서근식	다산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4	임헌규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5	장현오	정다산의 『대학』관에 관한 일고	철학 논총 82	새한철학회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沈大允(白雲, 1806 - 1872)으로 4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노경희	심대윤의『論語注說』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2	장병한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I(-19 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3	장병한	심대윤의 『예기』 '舊說'과 '新注'에 대한 辨 正 의미(-심대윤의 『禮記正解』 「단궁」편 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2	영산대학교 동양문 화연구원
4	장병한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19세기 王權·法義의 강화와 民利· 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	양명학 42	한국양명학회

다음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인물은 李瀷(星湖, 1681 - 1763)으로 3 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서근식	성호 이익의 『論語疾書』 연구(一二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정 신 문 화 연 구 38–3	한국학중앙연구원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大學疾書』 연구	정 신 문 화 연 구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 정 ।(-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논집 44	한국철학사연구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8명으로 시대순으로 나

열해 보면 盧守愼(蘇齋, 1515 - 1590), 崔鳴吉(遲川, 1586 - 1647), 安錫 儆(霅橋, 1718 - 1774), 鄭赫臣(性堂, 1719 - 1793), 崔象龍(鳳村, 1786 -1849), 李震相(寒洲, 1818 - 1886), 薛泰熙(1875 - 1940), 申晟圭(遜庵, 1905 - 1971)이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	김윤경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 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I(-『論語記疑』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3	양원석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 의 특징	한문고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4	최정묵	성당 정혁신의 삶과 『대학』에 대한 이해(- 명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 구소
5	윤기륜	봉촌 최상룡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경학 사적 위상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6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春秋集傳』과 『春 秋翼傳』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7	최석기	설태희의 『대학』 해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8	최석기	손암 신성규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 구소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6편의 논문 중 朱熹(晦庵, 1130 - 1200)를 다룬 논문이 3편 있고, 程頤(伊川, 1033 - 1107), 胡安國(青山, 1074 - 1138), 王夫之(薑齋, 1619 - 1692)를 다룬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2		주희 『詩集傳』〈鄭風〉'鄭',〈緇衣〉,〈將仲 子〉,〈大叔于田〉新舊傳 비교 연구	중국어 문논총 70	중국어문연구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3	주광호	『周易本義』의 성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4	김동민	정이천의 理學的『春秋』이해에 관한 연 구	60	한국유교학회
5	김동민	호안국의 『춘추』 해석을 통해 본 송대 춘 추학의 특징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6	임옥균	왕부지의 대학 이해(~주희 이해와의 비교 를 중심으로~)	국제판 유교문화연 구 23	성균관대학교 유교 문화연구소

3) 두 학자 이상 비교

2명 이상의 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1편이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學 개념 해석비교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3. 주제별 분류

이 책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을 삼았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았다. 총 29편의 경학 논문을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대학』관련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고, 『논어』 6편, 『춘추』 4편, 『시경』 3편, 『역경』 3편, 『예기』 2편, 『맹자』 1편, 『서경』 1편, 『주례』 관련이 1편 있다.

참고로 2014년에는 총 51편 중 『중용』 관련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200 한국 유교 레포트

많았고, 『역경』12편, 『대학』6편, 『춘추』4편, 『논어』3편, 『맹자』3편, 『상서』3편, 『시경』관련 2편이 있었다. 경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 학자의 경학 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3편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2014년에 15편으로 가장 많았던 『중용』 관련 논문이 2015년에는 한편도 없다는 점이다.

1) 『대학』

『대학』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大學集錄』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大學疾書』 연구	정 신 문 화 연 구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정묵	성당 정혁신의 삶과 『대학』에 대한 이해(- 명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유학연 구소
4	김유곤	다산 정약용의 『대학』이해에 나타난 학문 관	Acta Koreana 18–2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5	서근식	다산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60	동양고전학회
6	장현오	정다산의 "대학』관에 관한 일고	철학 논총 82	새한철학회
7	최석기	설태희의 『대학』 해석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대학』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옥균	왕부지의 대학 이해(- 주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판 유교문화연 구 23	성균관대학교 유교 문화연구소

2) 『논어』

『논어』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윤경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 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I(-『論語記疑』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7	한국철학사연구회
2	서근식	성호 이익의 『論語疾書』 연구(一二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정 신 문 화 연 구 38-3	한국학중앙연구원
3	윤기륜	봉촌 최상룡의 『논어』 해석의 특징과 경학 사적 위상	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4	노경희	심대윤의『論語注說』 역주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5	최석기	손암 신성규의 『論語講義』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 구소

『논어』해석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學 개념 해석비교	동양고전연구 61	동양고전학회

3) 『춘추』

『춘추』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인호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春秋集傳』과 『春秋翼傳』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6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춘추』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를 학자의 시대적 순서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정이천의 理學的『春秋』이해에 관한 연 구	60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호안국의 『춘추』 해석을 통해 본 송대 춘 추학의 특징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3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4) 『시경』

『시경』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노재준	고려 문인의 『시경』에 대한 태도	태동고전연구 35	한림대학교 태동고 전연구소
2	양원석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 의 특징	한문고전연구 31	한국한문고전학회

『시경』해석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주희 『詩集傳』〈鄭風〉'鄭',〈緇衣〉,〈將仲 子〉,〈大叔于田〉新舊傳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70	중국어문연구회

5) 『역경』

『역경』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학자들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 정 ।(-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광수	다산 정약용의 상수학적 역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역경』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주광호	『周易本義』의 성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 43	한국동양철학회

6) 『예기』

『예기』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병한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I(-19 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0	한국실학학회
2	장병한	심대윤의 『예기』 '舊說'과 '新注'에 대한 辨正 의미(-심대윤의 『禮記正解』 「단궁」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2	영산대학교 동양문 화연구원

7) 『맹자』

『맹자』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맹자』에 대한 한대 훈고학과 송대 주자학 의 해석 차이와 그 철학사적 의미(-趙岐 의 『孟子章句』와 주희의 『孟子集註』를 중 심으로-)		동아인문학회

8) 『서경』

『서경』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임헌규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9) 『주례』

『주례』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장병한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 19세기 王權·法義의 강화와 民利·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 -)		한국양명학회

4. 주요 논문 내용 요약

1)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된 주요 논문에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설태희의해석을 다룬 「설태희의 『대학』해석 연구」(최석기)가 있다. 저자는 설태희의 『대학』해석의 기본 관점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①『대학』을 '大人之學'으로 보되 주자와 달리 수신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②『대학』의 핵심을 주자가 '수기치인'으로 본 것과 달리 수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한 점,③ 주자의 '삼강령설'을 따르지 않고 明德을 體,親民을 用,至善을 極則으로 보는 '體用極則說'을 주장한 점,④ 주자의 '팔조목설'을 따르지 않고 '八次序'로 보아 修身의 身과 格物의 物을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 '八次序區別說'을 주장한 점을 든다.

분장과 편차 개정의 특징으로는 5가지로 정리하는데,①『古本大學』을 저본으로 分章하고 編太를 개정한 점,② 주자처럼 經文·傳文으로 나누어 해석한 점,③ 전1장부터 전5장까지만 편차를 개정하였을 뿐 나머지는 주자의『대학장구』와 동일한 점,④傳文에'釋止章'을 둔 점,⑤〈聽訟節〉을 '격물치지'의 사례로 본 점을 든다.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4가지로 정리하는데,① 전2장은 親民을 해석한 것으로 보아 친민이 '止於至善'한 효능으로 본 점,② 전3장은 至善을해석한 것으로 보아 명명덕·친민이 至善에 이르러야 함을 말한 것으로 본 점,③ 전4장은 '止於至善'의 止를 해석한 것으로 보아 止를 강조한점,④ 전5장은 〈聽訟節〉을 '格物致知'의 사례를 말한 것으로 본 것 등을

든다.

새로운 해석의 요지로는 7가지로 정리하는데,① 明德을 '良知'・'素仁'의 뜻을 겸한 것으로 본 점,② 親民을 程子・朱子처럼 新으로 바꾸지 않고 親愛・親近으로 본 점,③ 至善을 中正한 '正心處'로 본 점,④ 格物을 언제 어디서나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致知를 나의 감각을 따라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 점,⑤ '격물치지'를 인식주체인 身이 인식대상인 物을 대하면서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으로 보아 '知行合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 점,⑥ '모든 사람이 수신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수신제가장〉이하를 주자가 '上行下效'로 본 관점을 비판하며 군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이 아니라고 본 점,⑦〈정심수신장〉의 '身有所忿懥'의 身에 대해 程子가 心의 오자로 본 설을 따르지 않고 五官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 것 등을 든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설태희 『대학』해석의 이러한 특징이 왕수인의 『대학』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지만, 왕수인의 설을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그 설을 근본으로 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2)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최명길의 해석을 다룬 「지천 최명길의 『思問錄』에 나타난 사서해석 경향과 사상적 특징 I(-『論語記疑』를 중심으로 -)」(김윤경)이 있다. 이 논문은 최명길의 『사문록』 가운데 「논어기의」를 중심으로 『논어』 해석 경향과 그 사상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최명길의 『논어』 해석 경향의 특징으로 주자의 경전 해석을 통설로 여겼던 당시의 학문적 흐름에 의탁하

지 않고 경전 본의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고주와 일본의 고본 주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주와 신주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한 점을 든다.

고주를 인용하고 참조한 사례로는「태백」20장 '才難不其然乎唐虞之際於斯爲盛云云',「이인」18장 '事父母幾諫云云',「안연」7장 '足食足兵民信之云云'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주자 신주에 비판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고주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해석을 부기한 부분으로는「선진」19장 '不踐跡不入於室云云',「계씨」9장 '生而知之者上云云',「양화」3장 '上智與下愚不移云云'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최명길이 양명학을 긍정할 수 있었던 사상적 경향을 살필 수 있는 부분으로는「리인」8장 '朝聞道夕死可矣云云',「태백」4장 '君子所貴者三云云'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최명길의 『논어』 해석에 나타나는 그의 사상적 특징으로 心과 道는 본래 분리될 수 없고 공부를 할 때는 마음 상의 본원 공부가 본질이고 우선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그가 양명학을 긍정할 수 있었던 사유 경향은 될 수 있지만 그의 양명학수용 여부나 철학적 특색에 대한 정확한 규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문록』의 다른편인 「맹자기의」와 「대학기의」 등의 해석 내용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논문의 의의는 당시의 사서 해석 경향에 있어서 주자학 일변도가 아닌 다양성이 존재하는 일례를 검토하였고, 초기 양명학자로 거론되는 최명길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 양명학의 전개를 재조망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3)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진상 의 『춘추』이해를 분석한 『한주 이진상의 춘추학(-『春秋集傳』과 『春 秋翼傳』을 중심으로 -)』(박인호)이 있다. 이 논문은 이진상이 편찬한 춘추학 저술인 『춘추집전』과 『춘추익전』을 통해 당시 척사파 유학자 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는 이진상이 『춘추집전』에서는 『춘추』에 대한 전문을 수집하고 안설 을 덧붙여 經世와 尊君父의 대의를 밝히고 있으며, 『춘추익전』에서는 춘추 전후의 시대사 편찬을 통해 尊問와 大一統의 대의를 천명하고 있 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이진상이 사실에 대한 측면은 『左傳』의 기록을 취하고 의리적인 측면에서는 『胡傳』의 기록을 취하여 책을 편 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중후기 주자학자들이 『좌전』을 위주로 하 면서도 『호전』을 수용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한다. 다만 정 조 이후 중국으로부터 고증학 서적이 도입되고 독자적인 경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좌전』 수용의 흐름이 정조와 일부 유신 사이에서 나타 났는데, 이진상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 『호전』을 위주로 한 것으로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진상의 위정척사적 행동의 이론적 배경에는 춘추학이 있으며, 생애 말기에 『춘추집전』과 『춘추익전』을 통해 경세의식과 존주 의식을 보이려고 한 것은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었다고 파악한다. 즉 이진상은 자신의 척사적 입장이 『춘추』 의리에 닿아 있음을 『춘추』 연구를 통해 표방함으로써 경학적 측면에서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4) 『시경』 관련

『시경』과 관련해서는 「삽교 안석경의 시경론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양원석)이 있다. 이 논문은 안석경의 『識聞・詩傳』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석경 시경론의 주요 내용과 『시경』 해설 방법의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먼저 안석경의 경전과문장에 대한 인식 및 『지문・시전』의 구성과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주자주 존숭과 주자 '淫詩說' 긍정 등의 시경론을 파악하고, 또한 경문 해설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문・시전』은 수사학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시경』 주해서라고 그 성격을 정리한다.

저자는 안석경이 『지문·시전』에서 주자주 외의 다른 주석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주자의 주석 특히 『詩集傳』을 인용하거나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주자의 주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을 보여주며, 주자의 주석을 '聖譯'이라고 칭하는 등 매우 존숭하는 입장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안석경이 주자의 '음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주자가 음시라고 판정한 상당 수 시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음시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안석경은 음시 판정의 문제 보다는 시편의 문장 수사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지문·시전』에서 볼 수 있는 경문 해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사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藝學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 '篇章의 수사학'과 '字句의 수사학'을 『지문·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지문・시전』은 일반적인 경학 저술과 그 성격

을 달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경학사에서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5) 『역경』 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 I (-성호 이익의 『易經疾書』에 나타난 『주역』해석 방법 -)」(서근식)이 있다. 이 논문은 이익 『역경질서』의 『주역』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이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역』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互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익이 호체를 통해 『주역』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저자는 이익이 적용한 호체의 핵심은 六十四卦→十六卦→四卦→陰陽인데, 여기서 음양은 乾・坤이고 四卦는 乾・坤・旣濟・未濟이고 十六卦는 乾・坤・剝・復・夬・姤・頤・大過・漸・歸妹・騫・解・家人・睽・旣濟・未濟이며, 이익은 이러한 호체 이론이『周易』의 六十四卦를 모두 아울러 설명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익이 16卦에서 64卦를 연역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호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호체는 이익이 주장한 것처럼 『주역』을 아우를 수 없었고, 다만 뒤에 정약용이 호체를 중요한 이론으로 삼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약용이「貞軒墓誌銘」에 쓴 글을 증거로 정약용이 중국의 『역학』 저술뿐만 아니라 성호학파 내부의 『역학』 저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정약용의 易理四法은 西河의 『역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성호학파 내부에서 오랫동안 숙고를 거쳐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6) 『예기』 관련

『예기』와 관련해서는 「심대윤의 『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I(-19세기 양명학적 예학론의 한 특징 파악을 중심으로 -)」(장병한)이 있다. 저자는 심대윤이 당시 19세기 전·중반의 시기를 위기적 국면으로 진단하고, 그와 같은 위기의 원인처로서 이전 관학의 보호아래 정치와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鄭玄·孔穎達·朱熹·陳澔의 예설을 주목했다고파악한다. 요컨대 저자는 심대윤이 이들의 예설이 선왕의 禮와 道를기이한 것으로 변모하게 함에 따라, 그만 예가 인간의 常情과 常理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진단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심대윤은 선왕의 예를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존의 예설에 대한 변통의 필요성을자각하고, 공자의 禮觀에 기준하여 오직 옛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大同의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에 의한예학의 變通政策이 요망됨을 先唱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심대윤은 스스로 시대의 군자로 자처하고, 당시의 위기적 국면의 현실 타개책으로 기존의 禮經으로 숭상 되어 온『예기』와 전통적 관학의 중심에 있었던 한・당・송의 예학 체계에 대한 변통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심대윤이 기존의 정주학적 예학론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통해 제안한 새로운 예학적 입장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① 禮는 人禮이며 人道로 파악한 점,② 예는 實文이며 實利로 파악한 점,③ 禮制는 때에 따라 편리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심대윤의 예학적 특징들은 기존의 한국 통치 이념과 예학의 중심에 있었던 정주학 계열의 游氏와 李氏,주희 그리고 진호의 예설과는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實利와 文飾 및 便利의 강조,仁의 조절성을 중요시 한 점등은 기존 정제두의 양명학적 예론의 특징 즉, 仁의 '精神根幹', '從簡主

義',奢侈와 文飾의 拒絶,實用과 實利의 중시 등에 많은 부분 접맥되어 있다고 파악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19세기 심대윤의 학적 체계가 17 - 18세기 정제두의 학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人民(農·工·商人)의 禮重視, 人情과 事理 및 公利와 公益의 강조, 實文과 實利 및 便利·常情·常理·多衆·公利·大同의 제시 등은 한국의 실학성과 근대성의 가치 지향에도 일면 편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대윤의 예학사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7)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다산의 『서경』 인식」(임현규)이 있다. 이 논문은 정약용의 『서경』 인식을 고찰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정약용의 학문적 과제는 堯·舜-周公-孔子之道라고 하는 본원유학의 원형과 정신을 復命하고, 그를 통해 질곡된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 있는데, 정약용의 『서경』에 대한 관심과 해석 역시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파악한다. 또한 정약용은 육서오경에 대한 방대한 식견과 청나라의 고증학적 경향, 심지어 일본의 유학 연구에도 정통하여 『서경』에 대한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 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후대 위작으로 간주된 古文의 유출 경의를 증명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 자료의 수집과 채록을 통해 『서경』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 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정약용이 『서경』을 정치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는 옛 성인의 정사를 알려주는 역사책으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표준을 제대로 알아 소통하기만 하면 곧바로 현실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

다고 파악한다. 정약용은 『서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구에 대한 訓詁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구에 대한 훈구를 하려면 우선 경문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서경』은 殘缺이 가장 많은 경전이므로 먼저 당시 통행되고 있던 『상서』 중에서 후대에 위조된 부분을 변별한 다음 그 본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정약용이 회복하려고 했던 원형 『상서』란 공자가 직접 산정하고 序를 썼다고 말한 100편(「虞書」 20편, 「夏書」 40편, 「周書」 40편)인데, 100편의 원형 회복이란 진본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우선 방대한 문헌적 지식을 원용하여 漢代 이전의 경전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채록하고 배열한 다음 여러 학설을 모으고(『尚書古訓蒐略』), 수집된 고훈들의 同異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尚書知遠錄』) 합본했다(『尚書古訓』)고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약용의 이런 시도의 목표는 『상서』를 해석하기 보다는 옛 원형을 보존하여[存古] 『상서』의 본래 모습 혹은 大體를 알게 해주는 단서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8) 『주례』 관련

『주례』와 관련해서는 「심대윤의 『周禮刪正』과 왕도론에 관한 연구(-19세기 王權·法義의 강화와 民利·國富의 제창을 중심으로 -)」(장병한)가 있다. 저자는 15 - 16세기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일군의 성리학자들은 修己의 心性論的 修養論에 치우쳐 명물제도의 『주례』적 왕도론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외 17 - 18세기 성리학자 계열의 老論이나 少論 학파에서도 역시 『주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으며, 『주례』 연구와 그것의 정치적 활용은 대체

로 조선 건국기 정도전을 비롯하여 17세기 南人系 개혁적 성향의 실학 자들인 이수광, 윤휴, 유형원을 이어 19세기 정약용에 이르면서 계승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심대윤의 『주례』관이 이전의 학자나 학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① 이전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례』를 주공의 眞書로 기정사실화 한 반면 심대윤은 聖人인 周公의 眞書가 아니라고 규정한 점,② 기존의 17 - 18세기 노론이나 소론학파에서는 『주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심대윤은 소론의 당맥과 하곡의 양명학적 세계관에 기맥이 닿아있는 가운데 『주례산정』,『禮記正解』,『儀禮正論』을 저술하여 미래의 王道論的 指南書가 되기를 제안한 점,③ 조선 건국기 정도전을 비롯하여 17세기 남인계 개혁적 성향의 실학자들이 『주례』의 이념과 제도에 근거한 현실 개혁을 통해 과거 『주례』적 이상에로의 복구를 희망한 것(取古 酌今)에 비해, 심대윤은 옛 경전인 『주례』적 가치를 무조건 맹신하지만은 않고 先王의 易簡主義와 현실적인 국가와 백성의 實益性에 기준하여 再刪正함을 통하여 작금의 經世濟民에 적합한 즉, 19세기 새로운 유가적 『주례』를 기획한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주례산정』에 나타난 심대윤의 19세기 경세적 왕도론은 당시 낡은 봉건 구조의 정치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고 개혁함 을 통해 더 나은 조선 근대 유가의 왕도론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유학의 근대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5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거의 연구 되지 않았던 노수신 · 설태희 · 정혁신의 『대학』, 최명길 · 최상룡 · 신성규의 『논어』, 이진상의 『춘추』, 안석경의 『시경』, 심대윤의 『예기』와 『주례』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한편「다산 정약용의 『대학』해석에 관한 연구」,「정다산의 『대학』 관에 관한 일고」 등은 기존에 발표된 정약용의 『대학』 연구 성과와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이 연구된 주제를 연구할 때에 는 기존 연구 성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이후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 이나 특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